

# 웃둥 보살 빛둥 거사 <37>

구성 : 김흥민



발로 장자의 입을 찬 하인

<백유경(百諭經)>



옛날 큰 재물을 가진 장자가 있었다. 죄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공경을 다했다. 장자가 가래침을 뱉을 때에는 모시는 사람들이 재빨리 발로 밟아 문질러버렸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가래침이 땅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재빨리 밟는다. 그렇다면 나는 그가 뱉으려 할 때 먼저 밟으리라.' 그때 장자가 막 가래침을 뱉으려 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곧 다리를 들어 장자의 입을 차서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다. 장자가 그에게 "왜 내 입을 찼느냐?"고 물으니 그는 "장자의 침이 막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먼저 밟아 장자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무릇 어떤 일이나 때가 있는 것이니,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억지로 애를 쓰면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마땅히 '때'와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옛 판화의 세계

### 국청사의 세 성인 국청삼성(國淸三聖)



고려 화백의 불교 판화 <산세(山世) 국청삼성(國淸三聖)> (판화(版畵) 27.2 x 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의 사대총립중에 하나인 천태산 국청사의 유명한 국청삼성(國淸三聖)의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동양화에서 국청삼성과 호랑이를 함께 표현하는 것을 사수(四睡)라는 화제로 사람들이 즐겨 그렸다. 국청삼성은 천태산 국청사에 거주했으며, 항상 호랑이를 타고 출입했다. 풍간(豊干)이 주워 기른 아이가 한자 그대로 습득(捨得)이다. 부엌에서 밥을 하던 습득은 인근 한암이라는 굴속에서 비승비승으로 사는 한산(寒山)을 행이라고 부르며 헤어진 옷을 입고 나막신을 신으며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곤 했다. 마침 여구윤이 대주자사로 임명되어 왔는데 그만 병을 얻게 됐다. 그런데 그 병은 어떠한 약과 의술로도 효과가 없었다. 이를 알게 된 풍간 선사가 그의 병을 깨닫고 고쳐 주었고, 이에 여구윤은 크게 사례하며 설법을 청했다. 하지만 풍간 선사는 "나 보다는 문수와 보현께 물어 보시오." "두 분께서는 어디 계신지요?" "국청사에서 불 떼고 그릇 씻는 한산과 습득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사는 예를 갖추고 국청사로 한산과 습득을 찾아가니, 한산과 습득은 화로를 끼고 앉아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자사가 절을 올리자 한산은 자사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풍간이 실없는 소리를 지껄었군. 풍간이 바로 아마타불인줄 모르고 우리를 찾으면 될 하나?" 이 말을 남기고 한산과

습득은 절을 나와 한암굴로 들어 가버렸다. 자사 여구윤은 숲 속의 나뭇잎, 석벽과 돌 틈에, 혹은 촌락의 벽 등지에 써 놓은 한산의 시(詩) 삼백여 수를 모아 책으로 편집했다. 이 시집을 삼은집(三隱集)이라고 하며, <한산시(寒山詩)>라는 제목으로 전해 오고 있다. 창나라 나빙의 작품 가운데 실린 시의 한 구절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한 줄기 감로로 가슴을 울린다. "두 성인은 하하하 허허허 웃으며 살라 시네. 걱정 않고 웃는 얼굴 번뇌 적나니, 이 세상 근심일랑 웃는 얼굴로 바꾸라네. 사자들 근심 걱정 밭도 끝도 없나니, 큰 깨달음의 도는 기쁨 속에 꽃이 피네...중략... 하하하 허허허 웃으며 살라 시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장)



### 시가 있는 도량

### 노랑어리연꽃

밤새워 걸어서

등신불이 되는 꽃

웅덩이에

그보다

암자 하나 세운다

더 눈부신 날 없으리

그 순간

-김경/시집 <누가 바람의 집을 보았는가>에서



##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어래 저력을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운주사는 앞으로도 불교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주 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